



둥근잎꿩의비름 / *Hylotelephium ussuriense* (Kom.) H.Ohba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꿩의비름속 |
| 과국명 | 돌나물과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과명</p> | <p>Crassulaceae</p> |
| <p>일반특징</p> | <p> 요약설명 : 돌나물과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청송군과 포항시에서 자라며 중국에서도 볼 수 있다. 분포지역 : 중국 / 한국(경상북도 청송군, 포항시) 형태 : 여러해살이풀 크기 : 높이 15~25cm정도이다. 꽃색 : 자주색,붉은색 개화기 : 7월,8월 잎은 달걀 같은 둥근 모양 또는 타원 모양이다. 잎자루는 없으며 마주나기한다.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고 뭉뚝한 톱니가 있다. 꽃은 7~8월에 진한 홍자색으로 피고, 원줄기 끝에 둥글게 모여 달린다. 꽃받침은 끝이 5개로 갈라지고, 꽃받침조각은 창 모양이며 초록색이다. 꽃잎은 5장이고 자홍색이 돌며 배 모양이다. 수술은 10개가 있는데 그중 5개가 꽃잎과 마주나기한다. 수술대는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고 꽃가루주머니는 빨간색이며 꽃가루는 노란색이다. 암술은 5개가 서로 떨어져 있으며 꽃잎과 마주나기한다. 열매는 골돌과고 5개이다. 줄기의 높이는 15~25cm이고 아래로 처지며 붉은빛이 돈다. 몇 개의 굵은 뿌리가 있다. 주왕산 계곡의 바위틈에서 자라고, 절벽의 바위 위에 붙어 자라기도 한다. 반그늘에서도 잘 자란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를 하여 번식시킨다. 11월에 채취한 씨앗을 곧바로 뿌리면 다음 해 봄에 싹이 트고 1년 동안 관리한 후 다음 해에 옮겨 심는다. 또한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꺾꽂이가 가능하다. 한국의 특산종이며 잎과 꽃차례가 둥글고 꽃의 색이 자홍색인 것이 큰평이비름과의 차이점이다. </p> |